

스타트업의 외부환경과 경쟁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창업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성천¹, 황희곤^{2*}

¹서울종합과학기술대학원(aSSIST), ²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Competitiveness on the Performance Outcomes of a Startup: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tartup Support of the Government

Sung-Chun Kim¹, Hee-Kon Hwang^{2*}

¹aSSIST(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 Technologies)

²Hallym University of Graduate Studies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스타트업의 경쟁력과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에 있어 시장불확실성, 외부네트워크, 기업경쟁강도에 대해 스타트업의 외부환경의 요인으로 제시하고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서울·경기에 위치하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자 4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26.0, AMO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스타트업 외부환경인 시장불확실성, 외부네트워크, 기업경쟁강도는 모두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타트업 외부환경인 시장불확실성, 외부네트워크, 기업경쟁강도는 모두 기업경쟁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타트업의 기업경쟁력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스타트업 외부환경인 시장불확실성, 외부네트워크, 기업경쟁강도 모두와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기업경쟁력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스타트업의 [외부네트워크→기업경쟁력], [기업경쟁력→경영성과] 경로에서 정부창업지원이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타트업 성과와 관련된 연구 분야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도 실무적인 관점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xamine the effects of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and competitiveness on startup performance outcomes based on considerations of market uncertainties, external networks, and the intensity of business competition. The stud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namely, market uncertainty, external networks, and the intensity of business competition, had positive, significant impacts on business performance. Second, these environmental factors had positive, significant impacts on business competitiveness. Third, startup business competitivenes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impacted business performance. Fourth, an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business performance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encompassing market uncertainty, external networks, and the intensity of business competition, showed that business competitiveness significantly mediated startup performance. Fifth, governmental startup support programs significantly moderated the [external network ' business competitiveness] and [business competitiveness ' business performance] paths of startups.

Keywords : Startups, External Environment, Competitiveness, Business Performanc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 Hee-Kon Hwang(Hallym University of Graduate Studies)

email: hkh@hallym.ac.kr

Received May 18, 2023

Accepted July 7, 2023

Revised June 15, 2023

Published July 31, 2023

1. 서론

기업이 직면하는 환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환경에 대처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초기 스타트업에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예외는 아닐 것이다. 즉 외부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 이를 대처하여 경영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법으로 경영전략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기업의 전략은 외부환경에 따라 순응적으로 선택되고[1,2], 기업의 성과는 기업이 선택한 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3,4]. 이러한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대비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높아,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즉각 대응이 가능한 반면, 기업의 규모가 작아 외부환경에 대한 영향에 기업의 성과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테스트를 진입 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스타트업은 시장불확실성에 대해 민감히 반응해야 하고, 자체 생산 보다는 외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 특성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유연성을 보유해야 하며, 대규모 자금 조달, 연구개발, 설비투자에서의 어려움과 낮은 인지도로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에 대해 조기에 유통망 확보 및 시장점유율 향상, 사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품화, 생산, 마케팅 등 필수 시스템 확보가 이루어져야 성장이 정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제한으로 물류가 원활하지 않아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쳐 원자재 수급의 불균형, 각국의 인플레이션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수요와 공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환경 속에서 스타트업이 외부 환경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는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5].

많은 연구들에서 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위험 감수, 전략 수립 및 조직 변경과 같은 기업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6]. 또한 동태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은 공급업체, 고객과의 협력 수준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7]. 그러나 환경-전략-성과의 이론적 관점에서 기업 전략은 외부환경에 따라 순응적으로 선택되고[1,2], 기업의 성과는

기업이 선택한 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3,4]. Cui 외(2005)는 환경-전략-성과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다국적 기업 자회사를 대상으로 경쟁강도, 시장의 역동성과 지식경영역량, 전략의 관계, 지식경영역량, 전략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시장 역동성이 전략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전략이 또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으며[3], 정성하와 정신철(2022)의 연구에서도 기업의 환경을 기술강도, 경쟁강도, 정부지원정책, 재정지원으로 설정하여 경영전략과 경영성과의 관계성을 입증하였다[8]. 안홍재와 고석찬(2019)은 기업의 외부환경 중 입지적 특성이 경영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였다[9]. 이러한 스타트업의 외부환경적 요소는 스타트업의 내부환경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고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경철(2019)의 연구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컨설팅, 인프라, 네트워크 등의 외부자원 시스템이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진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에 성공하기 위한 중요 요인임을 언급하였다[10].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언급되는 스타트업의 외부환경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한 요인은 아니라는 점이 있다. 즉, 현재의 스타트업 상황을 분석하고, 환경에 맞는 외부환경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한 외부환경에 대해 시장불확실성, 외부네트워크, 기업경쟁강도로 설정하여 경영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지원 인식 정도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에 대한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원되는 정보의 창업지원 인식의 정도가 스타트업의 외부환경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절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에 대한 연구는 창업가의 특성에 관한 연구,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한 창업교육기관, 액셀러레이터 등의 역할, 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 실적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이 팬데믹으로 시장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본 연구가 스타트업의 경쟁력과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에 있어 시장 불확실성, 외부네트워크, 기업경쟁강도에 대해 스타트업의 외부환경의 요인으로 제시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데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 있으며,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스타트업 외부환경

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기업의 성공요인을 내부환경 요인과 외부환경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내부환경 요인으로는 최고경영자나 창업자의 교육적 배경, 인력의 전문성 정도, 지속적 기술교육에 대한 노력 및 조직 구성 등이 있고, 외부환경 요인으로는 기업과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는 외부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의지, 협력관련 조직과 지리적 인접성 및 정부의 지원 등이 있다[11].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한 요인으로 외부환경을 다루고자 하였고, 이러한 외부환경 요인으로 시장불확실성, 외부네트워크, 기업경쟁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시장불확실성은 기업이 전략적으로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장의 특성으로 강조되어 왔다[12]. 시장에서의 변화는 기술적 변화, 제도 및 경쟁자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Miller와 Frisen(1982)은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변화를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보고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은 기업이 자신의 사업분야 또는 기업이 속해 있는 시장 내에서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13]. 또한 Miller(1991)는 소비자의 기호가 자주 바뀌고 경쟁이 심한 환경의 경우, 혁신적인 차별화전략 및 마케팅 차별화 전략 등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안정적인 환경의 경우에는 원가우위전략이 적절하다고 제안하며 전략과 환경의 적합관계를 측정해 기업성과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14].

외부네트워크는 기업의 성공을 위해 기업 홀로 하는 방법보다 기업 간 협력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5]. 특히 최근 기업들이 급변하는 국제 경영환경 속에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즉 시장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 간 또는 기업 간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와 기호가 범세계화되는 기업 환경의 변화는 기업에게 기업 간 협력관계를 맺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16]. 다시 말하면, 기업은 복잡하고 복합화된 신기술을 홀로 개발하는 것보다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며[17], 이는 단순히 한 산업분야에서 이루어지던 기술개발과는 달리

여러 산업의 기술들과 결합 및 융합을 통해 획기적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 간의 기술협력은 일종의 전략적인 제휴를 의미하는 것으로, 참여 기업들이 제품이나 시장 지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기술이전과 공동 연구개발 등 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협력은 공동연구개발, 특허공유, 기술이전, 합작 등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18].

기업경쟁강도는 자원의 활용도와 자원획득을 위한 경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19]. 일반적으로 기업경쟁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장 내의 주요 경쟁자와 대부분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쟁자 정보에 대한 필요성은 경쟁강도에 의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 경쟁강도란 제품 시장에서의 경쟁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정도가 강한 시장 환경에서는 고객관계나 신제품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정보의 관리와 활용 능력을 더욱 확고히 하려 노력하며 그 결과, 경쟁이 심한 시장 환경 하에서 고객관계 관리의 실행 강도는 고객관계 구축에 있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21]. 즉, 고객관계 향상에 있어 경쟁강도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은 고객정보의 활용과 관리 수준을 높이려고 시도하며, 이러한 고객관리 실행 수준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시 고객관계에 있어 고객만족이 향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된다[22].

2.2 경쟁력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법으로 기업의 경쟁력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기업의 성공이 기업경쟁력에 기인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경쟁력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른 관점에서 다양하게 정의내리고 있다[23]. Andrews(1971)는 경쟁력을 기업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과 계획들을 수립하여 기업이 관여하고자 하는 제품-시장영역과 그렇게 결정된 제품-시장영역에서의 경쟁방식을 결정짓는 의사결정의 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24].

경쟁력은 경쟁자 또는 협력관계와 관련된 지위와 같이 지위로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이는 경쟁력을 기업의 외부 상황과 관련짓는 방식으로 인식함으로써 조직이 다른 조직이나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점으로서 경쟁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창업가가 자신과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인식함으로써 경쟁력 수립자 집단이 중요하며, 이들의 관점, 선호, 편애들이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25]. Seth와

Thomas(1994)는 조직의 주요 목표 정책 또는 일련의 행동들을 응집력 있는 전체로 통합시키는 패턴이나 계획으로 정의하였는데, 잘 수립된 경쟁력은 상대적인 내부 경영전략과 단점들, 경쟁자에 의해 취해지는 행동이나 환경에서 예측되는 변화들에 기초하여 실행 가능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조직자원을 정렬시키며 분배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주장하였다[26].

이몽안(2014)은 경쟁자가 있는 경우에 승부를 겨루거나 혹은 비교할 때 나타나는 종합적인 능력이므로 여러 방면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27]. 즉, 경쟁력은 한 가지의 항목이 아닌 많은 요소가 집중해 완성된 것으로,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 규모, 수출, 인원, 제품, 가격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28].

Porter(1980)는 동일 산업 내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경쟁력 유형을 차별화, 원가우위, 집중화의 3가지 본원적 경쟁력 유형으로 구분하였다[29]. 안진현(2008)은 기업경쟁력을 자본 조달 능력, 기술개발 능력, 신상품 아이디어, 판매력이나 시장개척 능력, 인력조달 능력 등이 포함한다고 하였고[30], 박은지(2017)는 비용경쟁력, 제품경쟁력, 촉진경쟁력, 유통경쟁력 등으로 분류하였다[28].

2.3 경영성과

경영성과란 조직의 다양한 목표 달성 정도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31],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한 무형 및 유형의 결과물을 일반적으로 경영성과라 한다[32]. Mintzberg(1973)는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한 자원 및 역량 등을 총동원하여 획득되는 결과물이라고 경영성과를 정의하였다[33]. 기업의 성과는 일반적으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재무적 성과는 단기적인 성과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비재무적 성과는 장기적인 성과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34].

재무적 성과는 기업의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재무적 성과가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최근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측정으로 경제적 성과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성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35]. 비재무적 성과는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경영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를 파악하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기업의 성과를 설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36].

특히 창업초기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창업가들이 영업

및 경영에 관련된 재무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영자들이 재무자료를 영업비밀로 생각하고 공개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37]. 따라서 스타트업의 경우 재무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동 업계 경쟁사 등과 비교하여 각 지표에 대한 만족도 성격의 창업가의 주관적 경영성과를 측정하여 활용하였다.

2.4 창업지원

창업지원은 창업자에게 자금대출, 기술 교육, 훈련, 사후관리 등의 통합적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38]. 우리나라는 1986년 「창업지원법」 제정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설립의 촉진과 창업된 중소기업의 발전 및 성장 지원, 건실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39].

창업지원에 대해 강영욱(2013)은 창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 창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거나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역량이나 간접경험, 지식 등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40], 이승현과 박재환(2014)은 창업지원을 창업초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이나 교육 등을 지원하고, 예비창업자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업무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41]. 따라서 정부는 창업초기에 창업사업화(자금지원)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많은 초기 창업가들이 창업에 대한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창업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창업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안윤홍(2007)은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정부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42]. 강영욱과 하규수(2011)의 연구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창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창업성공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창업지원제도가 창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창업성공 및 소상공인 창업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43]. 또한 선정규(2014)는 여수지역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44].

2.5 선행연구

기업의 성과 요인 중 외부환경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ane 외(2006)의 연구에서 기업 외부환경 요인은 경영성과의 흡수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45]. 이상

빈과 김훈(2015)은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기업이 기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술경영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술경영 역량을 통해 외부환경의 변화를 기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하였다[46]. 또한 소원근과 김하균(2017)은 기업환경의 요인인 시장의 불확실성, 기술경쟁강도는 기업의 협력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고[47], 손중욱(2022)은 시장불확실성, 창업가 역량이 스타트업의 경쟁전략,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시장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가의 사업기회 인식능력, 창업가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48].

기업의 외부환경 요인과 경쟁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의범과 김대수(2015)는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구매사의 유연성과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49]. 정길호(2017)는 창업기업의 외부네트워크 협력은 기술경쟁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기업으로서 네트워킹이 약한 상태에서 독자적인 시장개척이나 마케팅보다는 공동연구로서 창업기업이 부족한 면을 채워가고 있음을 밝혔다[50].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길호와 김병근(2017)은 창업환경 요인이 기업성과와 기술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에서 창업기업의 기술적인 경쟁우위를 위하여 연구개발 능력의 우수성, 기술 및 특허 등의 보유여부, 기술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서비스 및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 등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인 영업이익 또는 시장점유율, ROI 등의 증가요인으로 이어지는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검증하였다[6]. 김보인과 김병구(2022)의 연구에서는 글로벌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세계 경쟁력과 국내 경쟁력으로 구분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국내 경쟁력은 경영성과의 매출액에 정적인 영향을, 세계 경쟁력은 경영성과의 순이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1]. 이에 스타트업의 외부환경 요인과 경쟁력, 경영성과 간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스타트업의 경우 부족한 자금과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연구개발 단계 이후의 시제품 제작, 대량생산을 위한 설비와 마케팅 구축 등의 후속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52]. 정부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스타트업 기업이 겪는 자금배분의 왜곡을 해소할 수 있다[53]. 스타트업 기업은 이러한 지원 정책에 따른 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54].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을 기초로 하여 스타트업 외부환경, 경쟁력, 경영성과의 영향 관계에서 정부의 창업지원에 의해 긍정적으로 조절될 것을 예측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외부환경과 기업의 경쟁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서 정부 창업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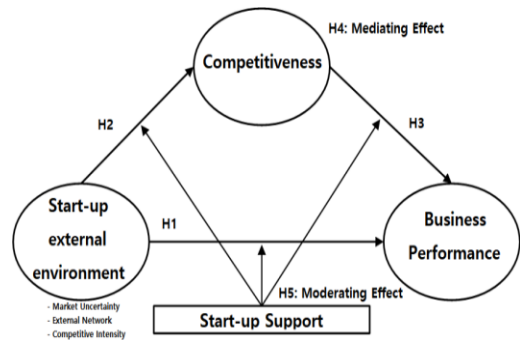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H1: 스타트업 외부환경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스타트업 외부환경은 기업의 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스타트업 외부환경과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H5: 스타트업 외부환경,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창업지원은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경기에 위치하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23년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510부의 표본을 수집하였으며, 불성실한 답변을 한 17명을 제외

한 총 493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81.7%(403명), 여성 18.3%(90명)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대해서는 20세-25세 5.7%(28명), 26세-30세 15.6%(77명), 31세-40세 43.8%(216명), 41세-50세 34.5%(170명), 50세 이상 0.4%(2명)로 조사되었다. 최종학력에 대해서는 고졸 이하가 1.4%(7명), 2-3년제 대학 졸업 28.6%(141명), 4년제 대학 졸업 54.2%(267명), 대학원 재학 중 8.9%(44명), 석사학위 취득 5.7%(28명), 박사학위 취득 1.2%(6명)로 나타났으며, 사업 년 수에 대한 응답으로는 1년 미만 40.2%(198명), 1년-2년 미만 36.7%(181명), 2년-3년 미만 18.3%(90명), 3년 이상 4.9%(24명)로 응답되었다. 직원 수에 대한 응답으로는 1명이 1.6%(8명), 2명-3명 미만 51.5%(254명), 3명-5명 미만 36.1%(178명), 5명-10명 미만 9.7%(48명), 10명 이상 1.0%(5명)이며, 응답자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 14.0%(69명), 경기 수도권 45.2%(223명), 경상도 14.0%(69명), 전라도 18.9%(93명), 충청도 7.7%(38명), 제주도 0.2%(1명)로 조사되었다. 관련업종에 대해서는 IT/R&D 8.9%(44명), 콘텐츠/IP 15.2%(75명),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44.2%(218명), 오프라인 매장 12.8%(63명), 무역/유통 14.8%(73명), 교육/서비스 2.6%(13명), 제조/건설 1.4%(7명)로 각각 나타났다. 연 매출액 규모에 대해서는 1억원 미만이 43.4%(214명), 1억-3억원 미만 46.9%(231명), 3억-10억원 미만 9.3%(46명), 10억-50억원 미만 0.4%(2명)로 나타났으며,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 1.6%(8명), 계획 중 9.3%(46명), 추후 고려 예정 71.4%(352명), 계획 없음 17.6%(87명)로 조사되었다. 무역전시회 참가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는 있음이 12.8%(63명), 없음이 87.2%(430명)로 나타났다.

3.3 측정도구

3.3.1 외부환경

스타트업 외부환경은 시장불확실성, 외부네트워크, 기업경쟁강도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스타트업 외부환경 중 시장불확실성은 기술이나 제품 등의 변화가 다양하여 경쟁업체에 관한 예측이나 시장에서의 고객수요, 또는 기호에 관한 예측이 어려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55], 이를 측정하기 위해 Li(2001), 이장우와 이성훈(2002), Miller와 Friesen(1982)의 연구에 기초하여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4, 13, 55]. 이 중 '제품/서비스의 수명주기가 짧다'와 '소비자의 기호 및 수요의 변화를 예

측하기 어렵다' 등 2개 문항은 역코딩하여 측정하였다. 둘째, 스타트업 외부환경 중 외부네트워크는 혁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부 혁신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협력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56], 이를 측정하기 위해 Hagedoorn(1993), 김영조(2005), 장지호 외(2008)의 연구에 기초하여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16, 18, 57]. 셋째, 스타트업 외부환경 중 기업경쟁강도는 가격 등 국내시장 환경 중 경제적인 요인들이 활동하는 기업들 간 경쟁구도를 이루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58], 이를 측정하기 위해 Zahra와 Bogner(1999), 최배배(2019)의 연구에 기초하여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58, 59].

스타트업 외부환경에 대한 척도는 3개 차원,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타트업 기업의 외부환경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스타트업 기업 외부환경에 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시장불확실성 0.785, 외부네트워크 0.805, 기업경쟁강도 0.853, 외부환경 전체 0.889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3.2 기업경쟁력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Baum 외(2001)와 이길원(2016) 등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였다[60, 61]. 본 척도는 단일차원,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에 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0.858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3.3 경영성과

스타트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양예형(2017), 주복기(2019) 등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였다[62, 63]. 본 척도는 단일차원, 총 5문항으로 경영성과 중에서도 비재무적 성과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타트업의 경영성과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스타트업 경영성과에 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0.877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3.4 정부창업지원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박남규(2014), 박성호와 양동우(2015), 이인재(2006) 등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였다(64-66). 본 척도는 단일차원, 총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 지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창업 지원에 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0.863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6.0, AMO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행하였고, 스타트업 외부환경, 경쟁력, 경영성과, 창업지원 변수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주요 변수 간 관련성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스타트업 외부환경, 경쟁력, 경영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행하고, 이들 변수 간 관계에서 스타트업의 경쟁력의 매개효과와 정부 창업 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4.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스타트업 외부환경(시장불확실성, 외부네트워크, 기업경쟁강도), 기업경쟁력, 경영성과, 정부창업지원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스타트업 외부환경(시장불확실성, 외부네트워크, 기업경쟁강도), 기업경쟁력, 경영성과, 정부창업지원의 개념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67).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Table 1), $\chi^2=995.032$, $df=441$, $GFI=0.880$, $AGFI=0.856$, $CFI=0.930$, $TLI=0.922$, $RMR=0.029$, $RMSEA=0.051$ 등의 적합도가 GFI , $AGFI$, CFI , TLI 는 0.8 이상, RMR 와 $RMSEA$ 는 각각

0.05 이하, 0.08 이하로, 모든 지수들이 권장 수준에 대부분 부합하였다(68). 또한 요인부하량(λ)의 경우, 0.5 이상을 양호한 기준으로 하였으며, 요인부하량(λ)이 0.511에서 0.829로 나타나 각 요인에 대한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검증하였다.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Path		S.T β	t-value	CR	AVE	Cronbach's α
Market Uncertainty	MU1	0.551	- ^a	0.882	0.607	0.785
	MU2	0.570	9.617***			
	MU3	0.772	11.505***			
	MU4	0.783	11.582***			
	MU5	0.511	8.902***			
Start-up external environment	EN1	0.698	- ^a	0.907	0.709	0.805
	EN2	0.764	14.828***			
	EN3	0.755	14.689***			
	EN4	0.793	15.266***			
Competitive Intensity	CI1	0.751	- ^a	0.913	0.639	0.853
	CI2	0.743	15.824***			
	CI3	0.734	15.642***			
	CI4	0.768	16.361***			
	CI5	0.616	13.024***			
	CI6	0.542	11.381***			
Competitiveness	C1	0.722	- ^a	0.917	0.688	0.858
	C2	0.745	15.651***			
	C3	0.717	15.072***			
	C4	0.742	15.598***			
	C5	0.775	16.273***			
Business Performance	BP1	0.692	- ^a	0.939	0.757	0.877
	BP2	0.788	15.858***			
	BP3	0.758	15.316***			
	BP4	0.829	16.578***			
	BP5	0.775	15.631***			
Government Start-up Support	GS1	0.642	- ^a	0.940	0.692	0.863
	GS2	0.623	11.660***			
	GS3	0.686	12.386***			
	GS4	0.580	14.031***			
	GS5	0.703	12.774***			
	GS6	0.721	12.841***			
	GS7	0.738	13.389***			

$\chi^2=995.032(df=441, p=.000)$, $\chi^2/df=2.256$, $GFI=.880$, $AGFI=.856$, $CFI=.930$, $TLI=.922$, $RMR=.029$, $RMSEA=.051$

^a - 분석 시 1로 고정된 값
*** $p < .001$

4.2 개념타당도 평가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스타트업 외부환경(시장불확실성, 외부네트워크, 기업경쟁강도), 기업경쟁력, 경영성과, 정부창업지원의 개념타당도 평가 및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스타트업 외부환경(시장불확실성, 외부네트워크, 기업

경쟁강도), 기업경쟁력, 경영성과, 정부창업지원의 각 위변수별 상관관계를 알아보면, 스타트업 외부환경의 시장불확실성은 기업경쟁력($r=0.539$, $p<.01$), 경영성과($r=0.595$, $p<.01$)에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고, 기업경쟁강도는 정부창업지원과 가장 큰 상관관계($r=0.552$, $p<.01$)를 보였다. 기업경쟁력은 경영성과($r=0.687$, $p<.01$)와 정부창업지원($r=0.603$, $p<.01$)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Variables	AVE	1	2	3	4	5	6
1	.607	1					
2	.709	.472	1				
3	.639	.529	.412	1			
4	.688	.539	.517	.528	1		
5	.757	.595	.514	.522	.603	1	
6	.692	.486	.442	.552	.687	.528	1
Mean	-	3.62	3.69	3.75	3.77	3.65	3.92
SD	-	.523	.602	.554	.593	.561	.551

** $p<.01$

1: Market Uncertainty, 2: External Network, 3: Competitive Intensity, 4: Competitiveness, 5: Business Performance, 6: Government Start-up Support

4.3 연구가설 검증결과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연구모형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Table 3과 같이 나타났으며, χ^2 , GFI, AGFI, CFI, TLI, RMR, RMSEA, χ^2/df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68]. 또한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표준화계수를 아래의 Table 5에서 살펴본 결과, 스타트업 외부환경 중, 시장불확실성($\beta=.366$, $p<.001$), 외부네트워크($\beta=.170$, $p<.001$), 기업경쟁강도($\beta=.131$, $p<.05$)는 모두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타트업 외부환경 중, 시장불확실성($\beta=.275$, $p<.001$), 외부네트워크($\beta=.312$, $p<.001$), 기업경쟁강도($\beta=.306$, $p<.001$)는 모두 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beta=.26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Hypothesis			S.T β	S.E.	t-value	Sig.
H1-1	Market Uncertainty	→ Business Performance	.366	.080	5.471***	Sig.
H1-2	External Network	→ Business Performance	.170	.049	3.204***	Sig.
H1-3	Competitive Intensity	→ Business Performance	.131	.049	2.412*	Sig.
H2-1	Market Uncertainty	→ Competitiveness	.275	.083	4.273***	Sig.
H2-2	External Network	→ Competitiveness	.312	.055	5.595***	Sig.
H2-3	Competitive Intensity	→ Competitiveness	.306	.056	5.312***	Sig.
H3	Competitiveness	→ Business Performance	.269	.059	4.221***	Sig.

*** $p<.001$, ** $p<.01$, * $p<.05$

다음 Table 4는 스타트업 외부환경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기업경쟁력에 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스타트업 외부환경 중, 시장불확실성, 외부네트워크, 기업경쟁강도는 모두 경영성과에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간접효과와 총효과도 유의수준 $p<.01$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경쟁력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Results of Analysis of Indirect Effects on Competitiveness through Bootstrapping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Market Uncertainty	Business Performance	-.366***	.000	.174**	.002	-.540***	.000
External Network		.170***	.001	.184**	.002	.354***	.000
Competitive Intensity		.131*	.016	.182**	.002	.313***	.000

*** $p<.001$, ** $p<.01$, * $p<.05$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 외부환경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기업경쟁력에 관한 매개효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Sobel-test를 실행하였으며[69],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기업경쟁력에 대한 매개효과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핵심역량 중, 시장불확실성(Z -value=3.002, $p<.01$),

외부네트워크(Z -value=3.371, $p < .001$), 기업경쟁강도 (Z -value=3.302, $p < .001$)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5. Mediating effect analysis result of competitiveness through Sobel-test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Market Uncertainty	Competitiveness	Business Performance	3.002	.003
External Network			3.371	.000
Competitive Intensity			3.302	.001

4.4 다중집단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으로 정부창업지원의 조절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다중집단분석 가운데 집단 간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비교 실행하기에 앞서 우선, 조절변수인 집단을 활용하여 정부창업지원의 평균 점수 ($M=3.92$)를 기준으로 정부창업지원이 낮은 집단 ($n=245$)과 정부창업지원이 높은 집단($n=248$)으로 분리한 후에 집단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인지에 대한 교차타당성(Cross Validation) 검증이 요구되는데[70], 이는 측정동일성(Measurement Equivalence) 분석에 의해 측정가능하며, 다중집단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실행한다[71,72]. 검증의 순서로는 먼저 집단 간의 아무런 제약도 하지 않은 모형, 즉 비제약모형(Model 1)을 기준으로, 요인부하량 제약모형(Model 2), 공분산 제약모형(Model 3), 요인부하량 & 공분산 제약모형(Model 4), 그리고 요인부하량 & 공분산 & 오차분산 제약모형(Model 5) 간의 각각의 값의 차이 검증을 실시한다.

측정동일성에 관한 결과 값은 아래의 Table 6과 같다. 정부창업지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요인부하량의 제약 모형(Model 2)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Delta df=20$, $\Delta \chi^2=29.355(31.410)$). 이는 두 집단이 스타트업 외부환경, 기업경쟁력,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설문을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분산을 제약한 모델(Mode 3)은 $\Delta \chi^2$ 값이 65.803($\Delta df=30$)으로 $\Delta df=30$ 일 때 $\chi^2=43.77$ 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또한, Model 4, Model 5에서 모두 $\Delta \chi^2$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집단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스타트업 외부환경, 기업경쟁력, 경영성과 간에 공분산을 설정하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우 인과관계를 가지는 변인 간에만 공분산 관계를 가지는 관계로 변환되기 때문에 Model 3,4,5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부분에 대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73]. 따라서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여 측정동일성을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Table 6. Study model fit of free model and constrained model

Division	$\chi^2(p)$	df	GFI	CFI	RMS EA	TLI	$\Delta \chi^2$	Sig.
Model 1 [Unconstraint]	850.171	466	.865	.910	.040	.898	-	-
Model 2 [λ constraint]	879.526	486	.861	.905	.040	.900	$\Delta \chi^2=29.355$, $\Delta df=20$ (Model 2-Model 1)	No
Model 3 [φ constraint]	915.974	496	.855	.905	.040	.897	$\Delta \chi^2=65.803$, $\Delta df=30$ (Model 3-Model 1)	Yes
Model 4 [λ, φ constraint]	981.235	526	.851	.905	.041	.896	$\Delta \chi^2=131.064$, $\Delta df=60$ (Model 4-Model 1)	Yes
Model 5 [λ, φ, θ constraint]	1071.192	536	.827	.898	.044	.891	$\Delta \chi^2=121.021$, $\Delta df=70$ (Model 5-Model 1)	Yes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은 집단 간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정부창업지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정부창업지원이 낮은 집단의 시장불확실성($\beta=.346$, $p < .01$)이 경영성과에, 시장불확실성($\beta=.267$, $p < .05$), 외부네트워크($\beta=.195$, $p < .05$), 기업경쟁강도($\beta=.398$, $p < .001$)가 기업경쟁력에, 기업경쟁력($\beta=.184$, $p < .05$)이 경영성과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정부창업지원이 높은 집단의 경우, 시장불확실성($\beta=.379$, $p < .001$), 외부네트워크($\beta=.238$, $p < .01$), 기업경쟁강도($\beta=.139$, $p < .05$)가 경영성과에, 시장불확실성($\beta=.322$, $p < .001$), 외부네트워크($\beta=.353$, $p < .001$)가 기업경쟁력에, 기업경쟁력($\beta=.282$, $p < .01$)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Table 7과 같다.

Table 7. Results of research hypothesis analysis among government start-up support groups

path		low group		high group	
		S.T β	C.R (<i>p</i> -value)	S.T β	C.R (<i>p</i> -value)
Market Uncertainty	→ Business Performance	0.346	3.213 (.001)	0.379	3.812 (.000)
External Network	→ Business Performance	0.091	1.126 (.260)	0.238	3.127 (.002)
Competitive Intensity	→ Business Performance	0.140	1.543 (.123)	0.139	2.040 (.041)
Market Uncertainty	→ Competitiveness	0.267	2.538 (.011)	0.322	3.309 (.000)
External Network	→ Competitiveness	0.195	2.297 (.022)	0.353	3.994 (.000)
Competitive Intensity	→ Competitiveness	0.398	4.335 (.000)	0.105	1.332 (.183)
Competitiveness	→ Business Performance	0.184	2.195 (.028)	0.282	2.731 (.006)

****p*<.001, ***p*<.01, **p*<.05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스타트업 외부환경 중 시장불확실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스타트업 외부환경 중 시장불확실성, 외부네트워크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쟁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창업지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시장불확실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창업지원이 낮은 집단이 $\beta=.346$ 이고 높은 집단이 $\beta=.379$ 이므로 정부창업지원이 높은 집단의 시장불확실성이 낮은 집단보다 경영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증명하기 위해 경로계수 제약 시 모형의(제약모형) χ^2 값 제약하지 않는 경우(비제약모형) χ^2 값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차이가 $\Delta\chi^2=3.84(\alpha=0.05, df=1)$ 보다 클 경우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해석해야 하며, 아니면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아야 한다. χ^2 의 비교 결과와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의 비교 결과는 다음의 Table 8, Table 9와 같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정부창업지원 정도에 따라 스타트업 외부환경 중 시장불확실성이 경영성과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β)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가설 5는 기각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 외부환경 중 시장불확실성이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β)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부네트워크는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β)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기업경쟁력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β)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5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Table 8. Multi-group analysis result

Path Constrained		χ^2	df	$\Delta\chi^2/df$	Sig.
Free Model		843.977	526	-	-
Market Uncertainty	→ Business Performance	844.377	527	0.400	No Sig.
Market Uncertainty	→ Competitiveness	844.328	527	0.351	No Sig.
External Network	→ Competitiveness	849.087	527	5.110	Sig.
Competitiveness	→ Business Performance	848.009	527	4.032	Sig.

Table 9. Critical Ratio of Differences Between Paths

path		Standardized Estimates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Sig.
		low group	high group		
Market Uncertainty	→ Business Performance	0.346	0.379	-0.625	No Sig.
Market Uncertainty	→ Competitiveness	0.267	0.322	-0.586	No Sig.
External Network	→ Competitiveness	0.195	0.353	3.670	Sig.
Competitiveness	→ Business Performance	0.184	0.282	2.334	Sig.

따라서 다중집단결과를 종합해보면, 정부창업지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의 차이에 관한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인된 경로는 [외부네트워크→기업경쟁력], [기업경쟁력→경영성과]로 나타났다. [외부네트워크→기업경쟁력]의 경로에서는 정부창업지원이 높은 집단의 경로($\beta=.353$)가 정부창업지원이 낮은 집단의 경로($\beta=.19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경쟁력→경영성과]의 경로에서는 정부창업지원이 낮은 집단의 경로($\beta=.184$)보다 정부창업지원이 높은 집단의 경로($\beta=.28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창업지원에 대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의 각 변인의 차이점검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0). 분석결과 정부창업지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시장불확실성, 외부네트워크, 기업경쟁강도, 기업경쟁력, 경영성과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10. Verification of differences according to government start-up support groups

variables	group	N	M	SD	t	P
Market Uncertainty	low group	245	3.42	.431	-8.915***	.000
	high group	248	3.81	.534		
External Network	low group	245	3.48	.542	-8.321***	.000
	high group	248	3.90	.584		
Competitive Intensity	low group	245	3.50	.471	-11.133***	.000
	high group	248	4.00	.519		
Competitiveness	low group	245	3.44	.517	-14.534***	.000
	high group	248	4.09	.476		
Business Performance	low group	245	3.42	.485	-9.892***	.000
	high group	248	3.88	.539		

*** $p < .001$, ** $p < .01$, * $p < .05$

5. 결론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외부환경, 기업의 경쟁력, 경영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 이들 변수 간 관계에서 기업의 경쟁력의 매개효과와 정부창업지원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2023년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49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6.0, AMOS 26.0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스타트업 외부환경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스타트업 외부환경인 시장불확실성, 외부네트워크, 기업경쟁강도는 모두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타트업 외부환경인 시장불확실성, 외부네트워크와 기업경쟁강도가 높을수록 시장점유율, 브랜드 인지도와 같은 경영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소원근, 김하균, 2017; 손종욱, 2022)의 연구결과에서 스타트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불확실성과 기술경쟁강도 등의 높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47, 48]. 따라서 스타트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사가 속할 외부환경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스타트업 외부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스타트업 외부환경인 시장불확실성, 외부네트워크, 기업경쟁강도는 모두 기업경쟁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타트업 외부환경인 시장불확실성, 외부네트워크와 기업경쟁

강도가 높을수록 기술개발 능력, 자본 조달 능력과 같은 기업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정길호, 2017; 정의범, 김대수, 2015)에서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스타트업 기업의 외부네트워크 협력이 높을수록 가격경쟁력, 기술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결과와 맥을 함께한다[49, 50]. 따라서 스타트업은 제품/서비스 관련된 혁신 기술을 갖추고, 외부와의 협력 활동 및 기업의 경쟁강도 수준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시너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스타트업 기업경쟁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스타트업의 기업경쟁력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타트업의 경쟁력인 기술개발, 판매력, 신상품 아이디어 같은 기업의 경쟁력 수준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김보인과 김병구(2022)의 연구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성과인 매출액과 순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51].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은 경쟁력의 세부 요인을 잘 파악하여 어떤 분야의 경쟁력에 투자 및 활용하는 것이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스타트업 외부환경과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스타트업 기업경쟁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스타트업 외부환경인 시장불확실성, 외부네트워크, 기업경쟁강도 모두와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기업경쟁력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타트업 외부환경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기업경쟁력이 동반된다면 스타트업의 경영성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길호와 김병근(2017)의 연구에서 스타트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능력의 우수성, 기술 및 특허 등의 보유여부, 기술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 서비스 및 제품의 기술적인 우수성 등과 같은 기업경쟁력 요인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와 맥을 함께한다[6].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은 기술혁신 노력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기업의 지속적이고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개발 능력, 아이디어 등과 같은 기업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사업 성공의 필요조건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섯째, 스타트업 외부환경, 기업경쟁력,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정부창업지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외부네트워크→기업경쟁력], [기업경쟁력→경영성과] 경로에서

정부창업지원이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모든 경로에서 정부창업지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스타트업 외부환경 중, 외부네트워크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경쟁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정부창업지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김용열과 박영서(2017)의 연구와 같이 정부의 창업지원이 높은 창업자들이 외부환경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과 맥을 함께한다[54]. 또한 강원(2014)의 연구에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스타트업 기업이 겪는 자금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53]. 본 연구에서는 정부창업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외부환경 요인들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기업경쟁력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을 적극 고려하여 발현함으로써 스타트업 기업들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근래에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국제화 추세와 관련하여 국내시장 외부환경 요인들과 기업경쟁력, 그리고 경영성과 간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각 요인들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들이 적절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스타트업 성과와 관련된 연구 분야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도 실무적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전체 표본의 수가 다소 제한적이고, 전체 기업능력 가운데 일부분만 연구에 포함되었으므로 그 연구의 내용 및 해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시장 환경 요인들과 글로벌 기업능력 간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 및 국내시장 외부환경 요인들과 경영성과들 간의 관계에 대해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각 지역별로 균형있는 샘플링이 이루어진다면, 국제화를 추진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국내시장 환경에 더 잘 대응하고 글로벌한 기업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앞으로 스타트업 분야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서 이론적 또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도 국제화를 추진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많이 산출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T. Clark, P. R. Varadarajan, W. M. Pride, "Environmental management: The construct and research proposi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29, No.1, pp.23-38, 1994.
DOI: [http://dx.doi.org/10.1016/0148-2963\(94\)90024-8](http://dx.doi.org/10.1016/0148-2963(94)90024-8)
- [2] C. P. Zeithaml, V. A. Zeithaml, "Environmental management: Revising the marketing perspective", *Journal of Marketing*, Vol.48, No.2, pp.46-53, 1984.
DOI: <http://dx.doi.org/10.2307/1251213>
- [3] A. S. Cui, D. A. Griffith, S. T. Cavusgil, "The influence of competitive intensity and market dynamism on knowledge management capabilit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subsidia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Vol.13, No.3, pp.32-53, 2005.
DOI: <http://dx.doi.org/10.1509/jimk.13.3.32>
- [4] H. Li, "How does new venture strategy matter in the environment-performance relationship?.", *The Journal of High Technology Management Research*, Vol.12, No.2, pp.183-204, 2001.
DOI: [http://dx.doi.org/10.1016/S1047-8310\(01\)00036-0](http://dx.doi.org/10.1016/S1047-8310(01)00036-0)
- [5] M. Srinivasan, D. Mukherjee, A. S. Gaur, "Buyer-supplier partnership quality and supply chain performance: Moderating role of risks, and environmental uncertainty", *European Management Journal*, Vol.29, No.4, pp.260-271, 2011.
DOI: <http://dx.doi.org/10.1016/j.emi.2011.02.004>
- [6] K. H. Jeong, B. K. Kim,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environment factors on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corporate performance of technology start-ups: Focusing on entrepreneurial competence, organizational culture, external cooperation, support for entrepreneurship",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Vol.12, No.2, pp.232-255, 2017.
DOI: <http://dx.doi.org/10.24878/tkes.2017.12.2.232>
- [7] S. Li, B. Lin, "Assessing information sharing and information quality in supply chain management", *Decision Support Systems*, Vol.42, No.3, pp.1641-1656, 2006.
DOI: <http://dx.doi.org/10.1016/j.dss.2006.02.011>
- [8] S. H. Jeong, S. C. Jeong, "A study on the effect of management environment on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management strategy", *The Journal of Global Convergence Research*, Vol.1, No.1, pp.41-50, 2022.
- [9] H. J. Ahn, S. C. Ko, "The effects of location characteristics of new technology-based firms on their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Vol.31, No.2, pp.91-121, 2019.
- [10] K. C. 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business performance of korean start-up going to overseas market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lobal market orientation*.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of Korea, 2019.
- [11] H. Romijn, M. Albaladejo, "Determinants of innovation

- capability in small electronics and software firms in southeast england”, *Research policy*, Vol.31, No.7, pp.1053-1067, 2002.
DOI: [http://dx.doi.org/10.1016/S0048-7333\(01\)00176-7](http://dx.doi.org/10.1016/S0048-7333(01)00176-7)
- [12] R. E. Miles, C. C. Snow, A. D. Meyer, H. J. Coleman Jr, “Organizational strategy, structure, and proces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3, No.3, pp.546-562, 1978.
DOI: <http://dx.doi.org/10.5465/AMR.1978.4305755>
- [13] D. Miller, P. H. Friesen, “Innovation in conservative and entrepreneurial firms: Two models of strategic momentu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3, No.1, pp.1-25, 1982.
DOI: <http://dx.doi.org/10.1002/smi.4250030102>
- [14] D. Miller, “Stale in the saddle: CEO tenure and the match between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Management Science*, Vol.37, No.1, pp.34-52, 1991.
DOI: <http://dx.doi.org/10.1287/mnsc.37.1.34>
- [15] T. K. Sung, “Determinants of firm's innovative output: The role of external networks and firm size”,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18, No.4, pp.1767-1788, 2005.
- [16] Y. J. Kim, “Technological collaboration linkages and the innovationoutput in small and medium-sized firms: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absorptive capacity”, *Korean Management Review*, Vol.34, No.5, pp.1365-1390, 2005.
- [17] P. Mariti, R. H. Smiley, “Co-operative agreements and the organization of industry”,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pp.437-451, 1983.
DOI: <http://dx.doi.org/10.2307/2098340>
- [18] J. Hagedoorn, “Strategic technology alliances and modes of cooperation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The Embedded Firm: On the Socioeconomics of Industrial Networks*, pp.116-138, 1993.
- [19] H. Mintzberg, “An emerging strategy of ‘direct’ research”,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24, No.4, pp.582-589, 1979.
DOI: <http://dx.doi.org/10.2307/2392364>
- [20] X. M. Song, M. E. Parry, “A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e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keting*, Vol.61, No.2, pp.1-18, 1997.
DOI: <http://dx.doi.org/10.2307/1251827>
- [21] D. W. Ryu, D. H. Lee, J. H. Park, Park, “The effects of alliance management capability on alliance performance in R&D SMEs: Moderating effect of competitive strength”, *Social Science Research*, Vol.25, No.1, pp.276-296, 2018.
DOI: <http://dx.doi.org/10.46415/jss.2018.03.25.1.276>
- [22] H. Y. Kim, Y. S. Cho, S. I. Jeon, D. H. kwak, J. H. Choi, “The impact of CRM implementation on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needs diversity and competitive intensity”, *Journal of Product Research*, Vol.29, No.5, pp.9-19, 2011.
DOI: <http://dx.doi.org/10.36345/kacst.2011.29.5.002>
- [23] S. J. Jang, *Strategic management*. Seoul: Paktoungsa, 2018.
- [24] K. R. Andrews, *The concept of corporate strategy*. M. Dow Jones-Irwin, Homewood, 1971.
- [25] H. Mintzberg, “Generic strategies: Toward a comprehensive framework”, *Advances in Strategic Management*, Vol.5, No.1, pp.1-67, 1988.
- [26] A. Seth, H. Thomas, “Theories of the firm: Implications for strategy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31, No.2, pp.165-192, 1994.
DOI: <http://dx.doi.org/10.1111/j.1467-6486.1994.tb00770.x>
- [27] M. A. Li, *A study of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korean cosmetics companies' chinese market competitiveness*.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of Korea, 2014.
- [28] E. J. Park, *A study on the effects of competence and competitiveness of SMEs on export performance*.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of Korea, 2017.
- [29] M. E. Porter, *Competitive strategy: Techniques for analyzing industries and competitors*. New York: The Free Press, 1980.
- [30] J. H. An,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ccess factors and marketing performance of iT venture business*. Master's Thesis, Changwon University of Korea, 2008.
- [31] K. G. Park, *Concept and types of performance indicators*. Seoul: Korea Institute of Policy Evaluation, 2004.
- [32] J. G. Kang, *A study on the resources factors that affect business performance of KONEX companies : Focusing on the business performance after listing caused by the financial input resources prior to KONEX listing*. Doctoral Thesis, Hansung University of Korea, 2019.
- [33] H. Mintzberg, “Strategy-making in three mode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16, No.2, pp.44-53, 1973.
DOI: <http://dx.doi.org/10.2307/41164491>
- [34] V. Govindarajan, “Appropriateness of accounting data in performance evaluation: An empirical examination of environmental uncertainty as an intervening variable”,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9, No.2, pp.125-135, 1984.
DOI: [http://dx.doi.org/10.1016/0361-3682\(84\)90002-3](http://dx.doi.org/10.1016/0361-3682(84)90002-3)
- [35] H. Atkinson, J. Brander Brown, “Rethinking performance measures: Assessing progress in UK hotel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Vol.13, No.3, pp.128-136, 2001.
DOI: <http://dx.doi.org/10.1108/09596110110388918>
- [36] V. Mahajan, E. Muller, F. M. Bass, “New-product diffusion models”, *Handbooks i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Vol.5, pp.349-408, 1993.
DOI: [http://dx.doi.org/10.1016/S0927-0507\(05\)80031-3](http://dx.doi.org/10.1016/S0927-0507(05)80031-3)
- [37] Z. R. Ravanera, F. Rajulton, “Measuring social capital and its differentials by family structures”, *Social*

- Indicators Research*, Vol.95, pp.63-89, 2010.
DOI: <http://dx.doi.org/10.1007/s11205-009-9450-9>
- [38] B. R. Johnson, "Toward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e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4, No.3, pp.39-54, 1990.
DOI: <http://dx.doi.org/10.1177/104225879001400306>
- [39] N. K. Park, M. S. Kim, J. W. Ko,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entrepreneurial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0, No.6, pp.89-98, 2015.
DOI: <http://dx.doi.org/10.16972/apibve.10.6.201512.89>
- [40] Y. U. Kang, *A study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s of potential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 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small business startup and self-efficacy*. Doctoral Thesis, Hoseo University of Korea, 2013.
- [41] S. H. Lee, J. H. Park,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spirit and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policy on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pp.163-198, 2014.
- [42] Y. H. An, *A study on improvement methods of government support policy of start up company*. Master's Thesis, Hanbat University of Korea, 2007.
- [43] Y. Y. Kang, K. S. Ha,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entrepreneurship execution: Focusing on supporters for startup funds for small business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pp.41-67, 2011.
- [44] J. K. Sun, *Efficiency measures of support policy to start-up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Focusing on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in Yeosu*.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of Korea, 2014.
- [45] P. J. Lane, B. R. Koka, S. Pathak, "The reification of absorptive capacity: A critical review and rejuvenation of the construc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31, No.4, pp.833-863, 2006.
DOI: <http://dx.doi.org/10.5465/AMR.2006.22527456>
- [46] S. B. Lee, H. Kim, "The impact of business environments and the technology management capability on firm performance", *Journal of Management & Economics*, Vol.37, No.2, pp.21-35, 2015.
- [47] W. G. So, H. K. Kim, "The factors of external environment, technology intensity and competitive intensity affecting to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corporation strateg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1, pp.49-61, 2017.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7.7.11.005>
- [48] J. W. Son, *A study on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uncertainty and entrepreneurs' competency on startups' competitive strategies and business performance*.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of Korea, 2022.
- [49] E. B. Jeong, D. S. Kim, "The effect of environmental uncertainty and supply chain integration on firm competitiveness.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Procurement and Supply Management*, Vol.14, No.2, pp.1-17, 2015.
- [50] K. H. Chong,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competence, organizational culture of start-up team, external cooperation, support for entrepreneurship on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corporate performance of technology start-ups*. Doctoral Thesis, Technology Education University of Korea, 2017.
- [51] B. I. Kim, B. G. Kim, "Determinants of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global ICT SM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 Management Review*, Vol.26, No.1, pp.71-81, 2022.
- [52] L. A. Hall, S. Bagchi-Sen, "A study of R&D, innov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in the canadian biotechnology industry", *Technovation*, Vol.22, No.4, pp.231-244, 2002.
DOI: [http://dx.doi.org/10.1016/S0166-4972\(01\)00016-5](http://dx.doi.org/10.1016/S0166-4972(01)00016-5)
- [53] W. Kang, "The early stage performance of successful SMEs and a desirable policy for SM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9, No.3, pp.1-11, 2014
DOI: <http://dx.doi.org/10.16972/apibve.9.3.201406.1>
- [54] Y. Y. Kim, Y. S. Park,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ME supporting policy",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ol.20, No.2, pp.387-405.
- [55] J. W. Lee, S. H. Lee, "Characteristics of stagnant venture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Strategic Management*, Vol.5, No.2, pp.1-27, 2002.
- [56] H. C. Son, *The relationship among technological innovation factors, innovation capability and business performance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Doctoral Thesis, Chungbuk University of Korea, 2013.
- [57] J. H. Jang, W. S. Kim, B. H. Lee, "Study of certification and evaluation program on innovativ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ocial Science Research*, Vol.24, No.2, pp.153-177, 2008.
- [58] B. B. Cui, *The effect of domestic environment and firm capabilities on the overseas learning of venture*. Doctoral Thesis, Gachon University of Korea, 2019.
- [59] S. A. Zahra, A. P. Nielsen, W. C. Bogner, "Corporate entrepreneurship, knowledge, and competence development",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23, No.3, pp.169-189, 1999.
DOI: <http://dx.doi.org/10.1177/104225879902300310>
- [60] J. R. Baum, E. A. Locke, K. G. Smith, "A multidimensional model of venture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4, No.2, pp.292-303, 2001.
DOI: <https://doi.org/10.5465/3069456>

- [61] K. O. Lee, *The influence of start-up CEO's entrepreneurial attributes and DFCA on business performance*. Doctoral Thesis, Seoulventure University of Korea, 2016.
- [62] Y. H. Yang, *The influence of corporate capacity of tenant companies of business incubators in university on business performance*. Master's Thesis, Dongyang University of Korea, 2017.
- [63] B. K. Joo, *The effect of start-up characteristics on corporate performance: Start-up business with less than 7 years of accelerating*.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of Korea, 2019.
- [64] N. K. Park,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 Conside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business failure burden and the self-efficacy*. Doctoral Thesis, Hoseo University of Korea, 2014.
- [65] S. H. Park, D. W. Yang,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the founder characteristics of a venture company and its enterprise growth phase for management difficulty factor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 pp.291-299,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291>
- [66] I. J. Lee, "A review of fiscal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 No.68, pp.299-332, 2006.
- [67] S. H. Hong, S. Jung, "Testing the interaction effects in regress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ories and procedur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21 No.4, pp.1-24, 2014.
DOI: <http://dx.doi.org/10.15284/kjhd.2014.21.4.1>
- [68] H. S. Le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nd AMOS 24*. Seoul: Jibhyeonjae, 2017.
- [69]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 [70] B. M. Byrn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Mplu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Routledge, 2013.
- [71] M. R. Mullen, "Diagnosing measurement equivalence in cross-national research",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26, pp.573-596, 1995.
DOI: <http://dx.doi.org/10.1057/palgrave.jibs.8490187>
- [72] M. B. Myers, R. J. Calantone, T. J. Page Jr, C. R. Taylor, "Academic insights: An application of multiple-group causal models in assessing cross-cultural measurement equival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Vol.8, No.4, pp.108-121, 2000.
DOI: <http://dx.doi.org/10.1509/jimk.8.4.108.19790>
- [73] W. J. Pil, *Structural equation model concepts and understanding: Common to Amos 4.0~20.0*. Seoul: Hannarae Publishing, 2012.

김 성 천(Sung-Chun Kim)

[정회원]



- 2002년 ~ 현재 : 스마트씨엠에스 대표 (수출상담회/B2B전시회/비즈니스매칭)
- 2020년 ~ 현재 :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경영학 박사 과정 중

<관심분야>

B2B, 중소기업, 무역전시

황 희 곤(Hee-Kon Hwang)

[정회원]



- 1993년 : 서울대학교 경영학박사 과정졸업 (국제경영)
- 1982년 ~ 1997년 : 한국무역협회 근무 (무역조사실/기획실)
- 2001년 ~ 현재 : 한림대학 및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전시컨벤션, 무역전시, 국제경영